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음식의 지역 명칭을 허하라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다. 설날그믐날 밤 북해도의 한 우동집에 가난한 세 모자가 들어와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한다. 사장이 여의치 못해 송구한 표정으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한 모자. 그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우동집 주인장은 티 나지 않게 반 그릇 분량의 우동을 더 담아 내준다. 이렇게 시작된 소설은 각박한 세상에서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배려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일본의 한 중의원이 1989년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소설 전문을 낭독해 회의장을 울음바다로 만든 후 '우동 한 그릇'은 일종의 사회현상이 되었다. 일본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었고 심지어 밀리언셀러가 될 정도였다.

문제는 번역된 소설의 제목. 이 소설의 원제목은 '한 그릇의 가케소바(一杯のかけそば)'. 번역 당시 '가케소바'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우동으로 의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30년 가까이 '한 그릇의 가케소바'는 '우동 한 그릇'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엄청난 오류다. 일본에는

설날그믐날 밤 메밀국수를 먹는 풍습이 있다. 이를 해를 넘기며 먹는 메밀국수라는 의미로 '도시코시소바'라 한다. 한 해 동안 목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해의 행운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먹는 것이다. 에도시대 금세공 기술자들이 메밀 반죽을 이용해 세공 과정에서 떨어진 금가루를 모은 것에서 유래된 전통이다.

세 모자가 굳이 설날그믐날 밤에, 굳이 메밀국수를 찾은 건 당장의 배고픔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한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거세하고 가케소바를 우동으로 바꾸면, 가난하고 굶주린 엄마와 두 아들밖에 남지 않는다. 단지 음식 명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소설의 주제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음식 명칭 자체가 가진 서사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의 명칭은 식재료와 조리법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을 벗어나 하나의 스토리가 음식의 명칭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다. 심지어 '도시코시소바'의 경우처럼 지역의 풍습과 결합될 경우 명칭이 내포하는 의미는 훨씬 확장된다. 따라서 남의 음식이든 내 음식이든, 음식의 명칭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한국 음식의 경우 외국어 표기에 특히 혼란이 많았다. 자음 받침이 유난히 많고 심지어 '쌍자음'까지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한글의 특성 때문이었다. 여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의식 부족까지 한몫 거들었다. 그 결과 이상한 음식 이름들이 등장했으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회를 'six times', 곱탕을 'bear thang', 칼국수를 'Knife-cut Noodle'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다행히 한식재단이 나서 200가지 한국 음식에 대한 영·중국어·일본어 표준 번역안을 확정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은 일단락되었다.

대외적인 표기는 이렇게 정리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유난히 표준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여기에 각 지방의 토산물을 세급으로 걷는 공납 덕분엔 식재료의 명칭이 일찍부터 통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실성이 오히려 한국 음식의 확장성을 막는 경우가 많다.

강과 하천의 물을 끌어들이며 농사를 지었던 한반도에서 다슬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식재료였다. 자연스럽게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충청도에서는 올갱이, 전라도에

서는 대사리, 경상도에서는 고디, 강원도에서는 쫄팽이 등으로 불렀다. 같은 국을 끓여도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조리법도 달랐다. 어디는 민물새우로 국물을 내 맑게 끓이고, 어디는 된장을 푸는 가 하면, 어디는 고추장을 풀어서 끓였다. 이처럼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환경에서 비롯된 명칭과 조리법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언어를 통일한다고 그 음식에 담긴 정서까지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댄 주레브스키는 그의 저서 '음식언어' 서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음식의 언어는 인간 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인간의 지각과 감정의 본성에서부터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한 사회심리학까지도 말해 준다." 즉 음식의 명칭은 그 자체로 정체성이자 서사이며,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심리를 반영한다. 따라서 다스간에 혼란이 있더라도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지역 명칭만큼은 지킬 필요가 있다. 나는 오히려 그런 혼란이 한국 음식의 다양성의 상징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믿는다.

<맛 칼럼니스트>

社說

'광주 경제자유구역'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어제 최종 확정되면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산 유발 효과만 10조 3641억 원, 그리고 3조 24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만 7496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민선7기의 핵심 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등 4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구·정원 승인을 받은 후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광주경제자유구역

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주시는 국내외 투자 유치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투자유치 전문기구인 가정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운영비,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감면세·재산세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올해로 시행된 지 17년이 됐지만 '무늬만 자유구역'인 곳이 많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투자 유치가 급감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따라서 광주시는 모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제 조사권 보장' 5·18 '진실의 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폭 보완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등 가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 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법안 채택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5·18 관련 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5·18역사왜곡처벌법안(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 내란죄 적용이 애매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5·18을 불법·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강제 조사권 등 5·18 진상조사위가 실효성 있는 조사

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진상규명 관련 국가 기관에는 특별기구 설치 등 협조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5·18의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밀 해제 자료 협조 등이 필요하고 핵심 과제에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기존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끝내 무산됐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당론 채택과 원활한 국회 처리가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칼럼

건강의 성적표 '혈압'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다. 가장 무서운 질환은 사실 통증이 없는 질환이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소의 식생활과 습관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이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인체의 장기에 이상이 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심장과 뇌, 신장, 눈 등에 문제가 생긴다. 고혈압의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혈압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만과 운동 부족인데, 이 습관은 혈당을 상승시켜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 고혈압과 당뇨, 각각으로도 위험한 두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우리 몸안의 혈관은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심장 주변의 큰 혈관부터 시작해 발과 손, 눈 등의 미세 혈관까지 파괴되면서 각종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신장이 망가지고 발을 자르거나 실명할 수도 있으며,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혈압을 관리하고 또 체크해야 한다.

혈압은 항상 고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측정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혈압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백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 혈압 변동성, 아침 고혈압 등의 혈압 용어들을 들으면 적이 있을 것이다. 병원 밖에서는 정상 혈압인데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측정돼서 고혈압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반대의 경우를 가면 고혈압이라고 부른다. 이때문에 혈압을 잘 때는 일정한 상황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는데, 우리 생활이 대개 아침에는 비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정한 신체 상황에서 측정하기에는 아침 혈압이 좋다. 아침에 잘 때 깨자마자 재면 오히려 불안정하고, 아침에 깨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안정 후에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로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측정하는 게 정확하다. 따라서 아침 혈압이 높다고 하는 사람 중 누워서 측정하거나 깨자마자 바로 측정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아서 높게 측정된 경우도 있다.

아침 5-7시 사이는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시간대이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 시간 또한 아침 9시 사이이다. 뇌졸중, 심장병이 주로 아침에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변동 폭이 넓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 가지 지표를 볼 땐 아침 고혈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 진료실 혈압은 분명히 백의 효과를 나타낸다. 백의 효과를 최대한 줄인 정확한 혈압 평가가 중요하며, 가정 혈압 측정을 잘 활용하면 아침 고혈압, 백의 효과, 백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 혈압 변동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양도는 없다. 다른 질환처럼 건강한 생활을 통해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한 번 먹으면 치료되는 약이나 기술은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주기적인 운동과 식습관 조절, 금연·금주를 통해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운동은 일주일에 3-4회 실시하고 회당 30분 이상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

음식도 염분을 최대한 줄이고 체지방률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량의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연·금주는 혈압을 낮추고 심부전 증상을 호전시키며, 심혈관 질환 및 암 발생률 또한 줄일 수 있으니 꼭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찰이다. 대부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남들이 겪는 그런 질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잊지 말자. 우리 생각보다 침묵의 살인자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고

식품 벤처 창업 열풍, 다시 불기를



최철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장

야 기술과의 융·복합 덕분에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1인 가구의 등장, 초고령 사회와 소비 패턴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농식품 산업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인터넷 붐으로 인한 벤처·창업 붐이 조성됐고,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열망도 커져 갔다. 하지만 '닷컴 버블'로 인해 창업의 열기가 크게 식고, 창업 실패의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벤처·창업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게 사실이다.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부상한 지 오래됐다. 그러나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이 크지 않고, 벤처 캐피탈에 의한 투자 유치율도 낮아 농식품 벤처·창업은 현재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약간 주춤한 상태라

고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농식품 벤처 창업 현황 및 정책적 제언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농식품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지,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그리고 농업과 타 산업의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2020년 벤처 육성 기업 선정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부 16개 부처 90개 창업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규모가 지난해 73억 원에서 올해 159억 원으로 상당히 증가했고, 농촌진흥청은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이 추가 발결됐다

고 발표했다. 이는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열풍이 다시 불어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컨트를 타워 역할 수행과 농식품 벤처에 특화된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 2015년 6월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전남A+센터)를 설치했다. 그 후 현재까지 전국에 7개(서울·경기·세종·강원·전남·경북·부산) 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열고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와 전북도, 광주시,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는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올해 53개 벤처 육성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신선하고 특색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무장한 전도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향후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린다. 지금부터라도 농식품 벤처·창업 열풍이 다시 불기를 기대해 본다.

無等鼓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 그 가수의 '음색'이 가장 가슴에 남는다. 나에겐 '목소리'로 또렷하게 기억되는 그런 가수가 몇 명 있다. '꽃밭에서'의 정훈희.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맑고 청아한데, 웬지 슬픔이 어려 있는 듯하다. 우리 나이로 지금 70세인 그녀가 처음 '안개'로 데뷔한 건 1967년이다. 무엇보다 그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실이 놀란다. 지난해 TV에 나와 부르던 '세월이 가면'이나 '꽃밭에서'. 그 목소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나를 불쌍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아요/ 날 기억해 주는 것 그걸로 되었소/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있겠소만/ 어찌 우리의 한이 풀릴 수 있겠소만/ 얼마나 더 그대를 기다릴 건지/ 언제 우리 웃으며 또 만날 건지/ 그때까지만 그대여 부디 잘 계시오/ 그때까지 그대여 부디 잘 계시오"

카메라는 천천히 페쳐처럼 변해 버린 건물의 복도를 따라간다. 이어지는 흑백 화면 속 하얀 들판 위로 눈발이 흠날리고 잔

잔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녀의 목소리가 흐른다. 첫 소절을 듣고 긴가민가하다 나중에 자막에서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익숙한 멜로디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변형이다.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됐던 '내 정은 청산이요'(청와대 유튜브). 1000일 동안 제주를 담은 다큐 '오버데어'로 깊은 감동을 줬던 장민수 감독과 작곡가 정재일이 제작한 작품이다. 옛 국군통합병원, 교도소 등과 도미야마 다에코의 석판화, 그리고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졌다.

정훈희

영화 '기생충'의 음악 감독이었던 정재일이 편곡한 이 노래의 가사는 박정학이 맡았다. 그는 운상의 '달리기', 김동률의 '출발' 등의 가사를 쓴 작사가다.

25분 분량의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보는 듯했다. 특히 마지막에 흐르는 정훈희의 노래는 잊을 수 없다. 앞으로 해마다 오월이 되면, 떠난 이는 물론 남아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을 울리는 그 가사와 슬픈 멜로디 그리고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